

Depression of the Old Generation Influence to the Death Anxiety : Control of the Resilience

노인 세대의 우울감이 죽음 불안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

Kyeong Ran Seo¹, Yun Jeong Kim²

서경란¹, 김윤정²

¹ Doctor Course, Dep. of the Elderly Welfare, Hanseo University, ROK, krseo6903@naver.com

² Professor, Dep. of Social Welfare, Hanseo University, ROK, twoyun21@hanmail.net

Corresponding Author: Yun Jeong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whether resilience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effects of depression on death anxiety in the elderly. To this en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in January 2023, targeting 300 elderly people aged 60 or older, by requesting a company that conducts online surveys. Frequency,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23.0 version, and moderating effects were verified using PROCESS macro for SPSS 4.1 versio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lderly's depression and resilience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Elderly people with good health, economic status, and family relationships had lower levels of depression and higher resilience than those who did not.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affects death anxiety. These results mean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depression experienced by the elderly, the higher the level of death anxiety.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death anxiety,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was found to be limitedly significant. In other words,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death anxiety in the elderly was significant only when resilience was in the 'medium' and 'high' groups.

Keywords: Depression, Death Anxiety, Resilience, Moderating Effect, Spss Process Macro No. 1

요약: 본 연구는 노인 세대의 우울감이 죽음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이 조절 효과를 보이는지를 파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60세 이상의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2023년 1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SPSS 23.0 version을 이용하여 빈도 및 기술통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PROCESS macro for SPSS 4.1 version을 활용하여 조절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우울감과 회복탄력성은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노인의 건강 상태, 경제 상태, 가족관계가 좋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낮고 회복탄력성이 높았다. 둘째, 노인 세대의 우울은 죽음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세대가 경험하는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죽음 불안 수준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우울과 죽음 불안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Received: March 26, 2023; 1st Review Result: May 10, 2023; 2nd Review Result: June 04, 2023
Accepted: June 30, 2023

조절효과는 제한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복탄력성이 ‘중집단’ 과 ‘고집단’ 인 경우에만 노인의 우울과 죽음 불안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가 유의했다.

핵심어: 우울감, 죽음 불안, 회복탄력성, 조절 효과, SPSS PROCESS macro 1번

1. 서론

2021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857만 명으로 전년보다 약 42만 명 증가했으며, 전체 인구의 16.6%를 차지하였고 2025년 고령인구 비중은 20.6%로,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1].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감은 13.5%[2]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더 심각한 경향을 보인다. 즉, 노인의 우울 증상이 있는 노인의 비율이 65~69세는 8.4%이고 75~79세는 15.6%인데 반해 85세 이상에서는 24%로 고령일수록 우울 증상이 있는 노인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2]. 따라서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집단에서 우울 증상을 보이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울감은 정상적인 기분 변화에서 병적인 상태에 이르는 근심, 무기력, 침울감 및 무가치감을 나타내는 상태로써[3], 노년기의 우울감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취약성과 더불어 환경적 스트레스, 사회적 경험의 복합적인 관계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4][5]. 예를 들어 우울을 경험하는 노인은 자기 비판적 경향이 생기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노인의 사회적 활동을 감소시킨다[6][7]. 이러한 활동 감소로 대인관계가 축소되며 이는 사회적 지지의 감소로도 이어진다. 사회적 지지의 감소는 우울감을 높이게 됨으로써 우울감의 프로세스가 반복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울감은 노인의 심리적 건강의 주요 지표로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8], 노년기의 삶에서 우울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노인의 우울감은 죽음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 죽음 불안(death anxiety)은 ‘죽음(death)’ 과 ‘죽어가는 것(dying)’ 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영향, 인식을 의미하는데[9] 노년기 우울감이 죽음 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11]. 노년기 죽음 불안의 영향요인에 관한 메타분석에서도 우울은 죽음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변인이었다[12][13]. 우울감이 죽음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울 증상이 심화될수록 부정적인 자기 초점 적 사고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자기 초점 적 사고는 절망감과 인지적 왜곡을 유발하여 결국 노년기에 직면하는 죽음 불안 수준을 심화시킨다[14-16]. 무엇보다 우울감은 자살 충동, 자살 시도 등 죽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우울감은 개인의 심리적 기능을 손상하고, 무력감을 조성하여 자살과 같은 극단적 자기 파괴적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정신적 문제로서[17][18], 60세 이상 자살 충동 이유 중에 우울감이 44.9%나 차지했다[19].

따라서 노년기 우울감으로 죽음불안이 높아진다고 할 때, 이 둘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음으로써 노인의 우울감으로 인한 죽음 불안을 낮출 필요가 있다. 노년기 우울감과 죽음 불안 간의 관련성을 조절하는 변수로 회복탄력성을 들 수 있다. 회복탄력성은 삶의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힘의 원동력 또는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힘을 의미한다[20]. 회복탄력성은 인간이 스트레스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회복하는 기능으로써, 삶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에

적응하는 능력이기도 하다[21]. 회복탄력성은 개인의 결함이나 약점보다는 상황에 알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개인의 능력과 자원으로서[22], 우울 및 죽음 불안을 낮추는 긍정적 변수로 작용한다.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여성의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고[23], 우울감이 낮아지고[24], 죽음 불안이 감소하며[25] 자살 생각도 감소한다[26]. 또한,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자 노력하며, 이로 인해 우울은 예방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27].

따라서 노년기 우울감이 높을수록 죽음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감과 죽음 불안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고찰하면, 노인의 우울감과 죽음 불안 간의 관계를 회복탄력성이 조절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우울감과 죽음 불안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를 직접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찾아보지 못하였다. 단지, Lee & Kim[21]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주 부양자의 부양 부담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 회복탄력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부양 부담이 높으면 우울감이 급격하게 높아지나, 회복탄력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부양 부담이 높아도 우울감이 완만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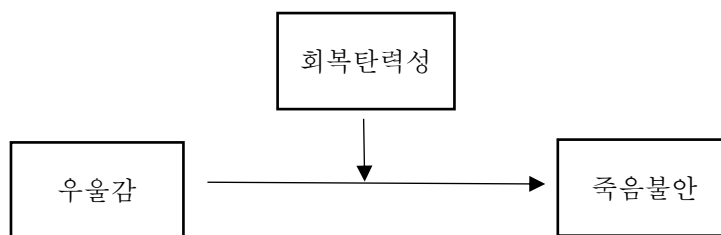
한편, 노인의 우울감, 회복탄력성, 죽음 불안을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난다. 최근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높고[28], 회복탄력성이 낮고[29], 죽음 불안이 높다[30][31]. 교육 수준, 건강 상태, 경제 상태, 가족관계가 좋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낮고[32][33], 회복탄력성이 높으며[29][34], 죽음 불안이 낮았다[30]. 또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낮고[35][36], 회복탄력성이 높으며[29], 죽음 불안이 낮았다[29]. 물론 노인의 성별에 따라 우울감의 차이가 없고[21][37], 회복탄력성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38]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우울감이 죽음 불만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 죽음 불안,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노인의 우울감이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델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우울감이 죽음 불만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그림 1]과 같은 연구의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델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에서는 2023년 1월 설문조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문업체에서는 서베이몽키 프로그램을 사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전국 60세 이상 일반인 남녀 300명(남자 150명, 여자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직업, 혼인상태, 직업, 거주지는 따로 구별을 두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30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독립변수 : 우울감 척도

독립변수인 우울감은 Kohout, Berkman, Evans, Conrnoni-Huntley[39]의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단축척도를 사용하였다. 11개 문항 4점 리커트 형(1=극히 드물다[일주일에 1일 미만], 2=가끔 있었다[일주일에 1~2일간], 3=종종 있었다[일주일에 3~4일간], 4=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5일 이상])척도이다. 11개 문항 중 2개 문항(비교적 잘 지냈다,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은 역 코딩하여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우울감의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912이다.

2.3.2 조절변수 : 회복탄력성 척도

조절변수인 회복탄력성은 Connor와 Davison[40]이 개발한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 척도를 백현숙 등[41]이 번안하여 타당성을 검증한 Korean Version of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을 사용하였다. 총 25개의 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의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940이다.

2.3.3 종속변수 : 죽음불안

죽음 불안은 Collett & Lester[42]가 제작한 FODS(Fear of Death Scale)를 서혜경(1987)이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를 오미나[43]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죽음 불안은 존재 상실의 불안, 죽음 과정의 불안, 사후 결과의 불안이라는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불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죽음불안의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889이다.

2.4 사회인구학적 특성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300명 중 여성이 50%, 남성이 50%로 동수를 이루었다. 노인의 연령은 60~64세가 60.3%이고 65세 이상이 39.7%였다(연령의 분포는 60세부터 82세까지였음). 학력은 고졸 이하 36.3%, 전문대졸 이상이 63.7%였다. 절대다수(86%)가 배우자가 있었으며, 건강 상태는 ‘나쁘다’ 17.3%, ‘보통이다’ 59.7%, ‘좋다’ 23%였다. 그리고 경제 상태는 ‘나쁘다’ 20.7%, ‘보통이다’ 65.3%, ‘좋다’ 14%였다. 종교는 기독교 및 천주교가 62.3%, 불교와 원불교가 37%였고 기타종교가 0.7%였다. 거주지는 대도시가 61.3%이었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38.7%이었다.

2.5 자료분석방법

SPSS Win 24.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고, SPSS PROCESS MACRO 4.1 version을 이용하여 조절 효과분석을 하였다. 조절 효과는 Hayes[44]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1번을 이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 5,000회 지정 및 신뢰구간 95%를 설정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인 부양부담과 조절 변수인 회복탄력성은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의 건강 상태, 경제 상태, 가족관계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즉, 노인의 건강 상태($F=8.327, p<.001$)와 경제 상태($F=8.356, p<.001$) 모두 ‘보통이다’와 ‘좋다’인 경우보다 ‘나쁘다’인 경우에 우울감이 더 높았다. 또한 가족관계가 나쁜 집단이 좋은 집단에 비해 우울감이 높았다($F=4.323, p<.001$).

[표 1]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 <N=300>

[Table 1] Differences in Depress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category	N	Depression			
		M±SD	t/F value	Scheffe' s	
Sex	Woman	150	1.653±0.646	-1.462	-
	Man	150	1.767±0.696		
Age	Under 64yr	181	1.720±0.672	0.326	-
	Over 65yr	119	1.694±0.677		
Education level	highschool graduate	109	1.714±0.708	0.076	-
	college graduate	191	1.708±0.653		
Spouse	Doesn't exist	258	1.640±0.700	-0.724	-
	Has exist	42	1.721±0.669		
Health level	Bad	52	2.046±0.812	8.327***	b
	Normal	179	1.650±0.640		a
	Good	69	1.612±0.565		a
Economy level	Bad	62	1.985±0.756	8.356***	b
	Normal	196	1.673±0.650		a
	Good	42	1.479±0.515		a
Family relation	Bad	90	1.959±0.728	4.323***	-
	Good	210	1.603±0.619		
Residence	Not big city	116	1.671±0.669	-0.800	-
	Big city	184	1.735±0.676		

***p<.001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의 건강 상태, 경제 상태, 가족관계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즉, 노인의 건강 상태($F=31.199, p<.001$)와 경제 상태($F=31.199, p<.001$) 모두 ‘좋다’인 경우에 회복탄력성이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 ‘나쁘다’ 순이었다. 또한 가족관계가 좋은 집단이 나쁜 집단에 비해 회복탄력성이 높았다($F=-5.111, p<.001$).

[표 2]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 <N=300>

[Table 2] Differences in Resilience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Category		N	Depression		
			M ± SD	t/F value	Scheffe' s
Sex	Woman	150	3.485 ± 0.547	-0.872	-
	Man	150	3.541 ± 0.560		
Age	Under 64yr	181	3.493 ± 0.554	-0.795	-
	Over 65yr	119	3.545 ± 0.552		
Education level	highschool graduate	109	3.413 ± 0.542	-2.393	-
	college graduate	191	3.570 ± 0.553		
Spouse	Doesn't exist	258	3.478 ± 0.509	-0.443	-
	Has exist	42	3.519 ± 0.561		
Health level	Bad	52	3.206 ± 0.541	21.154***	a
	Normal	179	3.485 ± 0.519		b
	Good	69	3.817 ± 0.504		c
Economy level	Bad	62	3.179 ± 0.517	31.199***	a
	Normal	196	3.520 ± 0.512		b
	Good	42	3.974 ± 0.443		c
Family relation	Bad	90	3.274 ± 0.575	-5.111***	-
	Good	210	3.616 ± 0.511		
Residence	Not big city	116	3.542 ± 0.563	0.717	-
	Big city	184	3.495 ± 0.547		

***p<.001

한편,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가 없었다(표로 제시하지 않음).

3.2 노인의 우울감이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3.2.1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노인의 우울감이 죽음 불만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를 파악하기 전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표 3).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울감이 높을수록 죽음 불만이 높았으며($r=.284, p<.01$) 회복탄력성은 낮아졌다($r=-.309, p<.01$). 죽음불만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낮아졌다($r=-.121, p<.05$). 또한 상관계수인 r계수를 보면 -.121에서 .309까지로 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없었다(표로 제시하지 않음).

[표 3] 우울감, 죽음불안, 회복탄력성 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N=300>

[Table 3] Correlation and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mong Depression, Death Anxiety, and Resilience

	Depression	Death Anxiety	Resilience
Depression			
Death Anxiety	.284**		
Resilience	-.309**	-.121*	
M(SD)	1.601 (.553)	3.297 (.782)	3.513 (.553)

*p<.05, **p<.01

3.2.2 노인의 우울감이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회복탄력성이 노인의 우울감과 죽음 불안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표2와 표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노인의 건강 상태, 경제 상태, 가족관계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수인 노인의 우울감이 높을수록 죽음불안이 높았고(Coeffect=.171, p=.020), 노인의 우울감과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 항의 효과 값이 .333(p=.003)으로 유의하였다. 모델의 F값은 2.847(p=.005)으로 유의하였고, 설명력은 7.3%였다. 또한 상호작용 항이 추가됨에 따라, R2의 변화량은 .029(p=.003)로 유의하여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가 검증되었다(Tabl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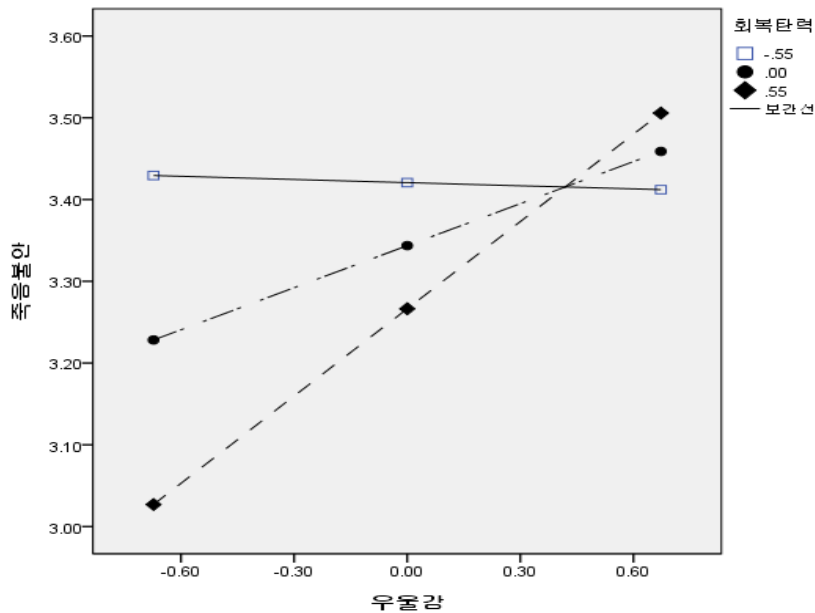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그 형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 효과를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유의한 상호작용의 패턴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복탄력성을 ‘저집단’, ‘중집단’, ‘고집단’으로 각각 나누어 기울기를 살펴보았다. 표 4와 그림 2의 회복탄력성에 따른 노인 우울감의 조건부 효과를 보면 우울감이 죽음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먼저 표 4의 조건부 효과를 보면, 회복탄력성이 ‘중집단’과 ‘고집단’의 경우에 조절효과가 유의했다. 또한 그림 2를 보면, 회복탄력성이 ‘고집단’과 ‘중집단’에서는 우울감이 높을수록 죽음불안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복탄력성이 ‘저집단’의 경우에는 우울감이 죽음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4] 우울감이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N=300>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Effect of Depression on Death Anxiety

Dependent variable: death anxiety							
Variable	Coeffect	se	t값	p	LLCI	ULCI	
Constant	3.684	.349	10.549	.000	2.996	4.370	
Depression	.171	.073	2.347	.020	.028	.315	
Resilience	-.140	.102	-1.372	.171	-.340	.061	
Depression × Resilience	.333	.110	3.02	.003	.116	.551	
Variable	Economy level	.095	.077	1.244	.215	-.056	.247
	Health level	-.125	.073	-1.718	.087	-.268	.018
	Family relation	-.048	.076	-.629	.530	-.197	.101
R2=.073 F=2.847 p=.005							
R2 increase by interaction							
Interaction	R2		F		p		

depression × resilience	.029		9.109		.003	
Conditional effect by resilience						
Resilience	Effect	se	t값	p	LLCI	ULCI
-.553(M-1SD)	-.013	.087	-.148	.883	-.184	.158
.000(M)	.172	.073	2.347	.020	.028	.315
.553(M+1SD)	.356	.103	3.459	.001	.153	.558



[그림 2] 우울감과 죽음불안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Fig. 2]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Death Anxiety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 세대의 우울감이 죽음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이 조절 효과를 보이는지를 파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60세 이상의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2023년 1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SPSS 23.0 version을 이용하여 빈도 및 기술통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PROCESS macro for SPSS 4.1 version을 활용하여 조절 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우울감과 회복탄력성은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노인의 건강 상태, 경제 상태, 가족관계에 따른 우울감과 회복탄력성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노인의 건강 상태, 경제 상태, 가족관계가 좋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낮고 회복탄력성이 높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의 건강 상태, 경제 상태,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우울감이 낮다는 선행연구[32][33]와 회복탄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29][34]와 같은 결과이다.

둘째, 노인의 우울은 죽음 불안에 영향을 미쳤다. 즉, 노인이 경험하는 우울감이 높을수록 죽음 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과 죽음 불안 간의 관계를 설명한 선행연구[12][13]와 같은 결과이다. 이처럼 우울감이 높을수록, 죽음

불안이 높아지는 것은 우울한 사람이 갖는 사고의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울감을 겪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45], 우울증이 심해질수록 부정적인 자기 초점 적 사고(Self-focused Attention)가 높아지게 되며, 부정적인 자기 초점 적 사고는 절망감과 인지적 왜곡을 유발하여 결국 죽음 불안 수준을 높이게 된다[16-18].

셋째, 노인의 우울과 죽음 불안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는 제한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복탄력성이 ‘중집단’과 ‘고집단’인 경우에만 노인의 우울과 죽음 불안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가 유의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는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었다. 회복탄력성이 ‘중집단’과 ‘고집단’인 경우 우울감이 높을수록 죽음 불안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 우울감으로 죽음 불안이 높아질 때 회복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긍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회복탄력성의 긍정적인 효과를 주장했던 선행연구[21-24][27]와는 상반된 연구 결과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다음 2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우울과 죽음 불안 간의 관련성이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울은 자신에 대해 왜곡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므로 인지의 변화와 환경변화로 인한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해 죽음 불안이 더욱 심화한다[46]. 따라서 우울감이 높을수록 죽음 불안이 높아지는데, 높아진 죽음 불안에 압도되지 않기 위해 이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방어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죽음 불안이 다시 우울 증상으로 발현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47]. 또한, 우울을 경험하는 노인은 죽음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자아 기제가 약하기 때문에 죽음 불안과 우울 사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48].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의 상황에서 회복탄력성이 그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해석이 되며, 후속 연구에서는 우울감과 죽음 불안 간의 관계를 완충할 수 있는 제3의 변수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회복탄력성이 낮은 집단은 우울감 수준과 상관없이 죽음 불안이 높았으나, 회복탄력성이 높은 집단은 우울감이 낮을 때는 죽음 불안이 아주 낮은 수준이었다. 그런데 회복탄력성이 높은 집단도 우울감이 높아짐에 따라 죽음 불안이 급격하게 높아졌다는 점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즉, 우울감이 낮을 때는 회복탄력성이 죽음 불안을 낮추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나 우울감이 높아질 때는 회복탄력성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우울감의 수준에 따라서 우울감을 낮추거나 또는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울감이 낮은 노인에게는 회복탄력성을 높여서 죽음 불안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고, 우울감이 높은 노인에게는 우울감 자체를 낮춤으로서 죽음 불안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울감이 낮은 노인에게는 회복탄력성을 향상하는데 효과적인 미술 치료프로그램[49]이나 운동프로그램[50]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회복탄력성이 높으므로[51], 회복탄력성 향상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울감이 높은 노인에게는 상담이나 치료 등을 통해 우울감을 낮추는 것이 죽음 불안을 낮추기 위해 우선적이라는 점을 제안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우울감이 죽음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부분적인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고 우울감이 높은 노인과 낮은 노인의 죽음 불안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그간 회복탄력성의 긍정적인 효과를 주장했던 선행연구와는 달리 노인의 경우 높은 회복탄력성이 오히려 부정적일수도 있다는 점을 발견했고 이와 관련한 논의와

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우울감으로 인해 죽음 불안이 높은 노인을 위한 복지 및 상담 치료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도 본 연구의 표집 방법이 온라인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조사의 특성상 온라인 접근이 가능한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노인에게 적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조사 방법의 병행과 70, 80대 노인까지도 연구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https://kosis.kr/search/search.do?jsessionid=PbYA2v7paFWF1Ma3nTVf0x1muUFLQEJpjOw1Ep9G8lrvuPWyxXfALN2uRDyBH9nS.STAT_WAS2_servlet_engine1, Mar 26 (2023)
- [2]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1_019&vw_cd=MT_ZTITLE&list_id=117_11771_003_117_11771_003_06&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Aug 19 (2022)
- [3] J. Battl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Reports*, (1978), Vol.42, No.3, pp.745-746.
DOI: <https://doi.org/10.2466/pr0.1978.42.3.745>
- [4] H. S. Kwon, A Meta Analysis on Variables Related to Suppression of Depression of In-Home Elderly,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013), No.61, pp.241-266.
DOI: <https://doi.org/10.21194/kjgsw..61.201309.241>
- [5] F. Triolo, L. Harber-Aschan, M. B. Murri, A. Calderón-Larrañaga, D. L. Vetrano, L. Sjöberg, A. Marengoni, S. Dekhtyar, The Complex Interplay between Depression and Multimorbidity in Late Life: Risks and Pathways, *Mechanisms of Ageing and Development*, (2020), Vol.192, 111383.
DOI: <https://doi.org/10.1016/j.mad.2020.111383>
- [6] A. Fiske, J. L. Wetherell, M. Gatz, Depression in Older Adults,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2009), Vol.5, pp.363-389.
DOI: <https://doi.org/10.1146/annurev.clinpsy.032408.153621>
- [7] Y. Wu, C. Zhang, H. Liu et al., Perinatal Depressive and Anxiety Symptoms of Pregnant Women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Outbreak in China,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2020), Vol.223, No 2, pp.240.e1-240.e9.
DOI: <https://doi.org/10.1016/j.ajog.2020.05.009>
- [8] S. D. Jeong, M. J. Koo,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A Comparison among Babyboomers, the Pre-elderly, and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011), No.52, pp.305-324.
DOI: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29916>
- [9] A. M. Abdel-Khalek, R. A. Neimeyer, Death Anxiety Scale, *Encyclopedia of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17), pp.1-4.
DOI: https://doi.org/10.1007/978-3-319-28099-8_21-1
- [10] H. Bektaş, O. Körükcü, K. Kabukcuoğlu, Undercover Fear of Elderly People in Nursing Homes: Death Anxiety and Dep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Sciences*, (2017), Vol.14, No.1, pp.587-597.
DOI: <https://doi.org/10.14687/jhs.v14i1.4268>
- [11] S. Al-Natour, H. Cavusoglu, I. Benbasat, U. Aleem, An Emperical Investigation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Privacy Uncertainty in the Context of Mobile Apps, *Informations systems research*, (2020), Vol.31, No.4, pp.1037-1492.
DOI: <https://doi.org/10.1287/isre.2020.0931>
- [12] S. H. Kim, K. S. Park, A Meta Analysis on Variables Related to Death Anxiety of Elderly in Korea,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016), Vol.28, No.2, pp.156-168.

DOI: <https://doi.org/10.7475/kjan.2016.28.2.156>

- [13] V. Semenova, L. Stadtlander, Death Anxiety, Depression, and Coping in Family Caregivers, *Journal of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2016), Vol.10, No.1, pp.34-48.
DOI: <https://doi.org/10.5590/JSBHS.2016.10.1.05>
- [14] C. L. Philippi, Neural and Behavioral Correlates of Negative Self-Focused Thought Associated with Depression, *Human Brain Mapping*, (2018), Vol.39, No.5, pp.2246-2257,
DOI: <https://doi.org/10.1287/isre.2020.0931>
- [15] W. S. Choi,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Cognitive Functions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2005), Vol.12, No.4, pp.951-985.
UCI: G704-001532.2005.12.4.003
- [16] M. S. Lee, A Study on the Effects of Depression on Death Anxie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of Elder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010), No.49, pp.241-266.
DOI: <https://doi.org/10.21194/kjgsw..49.201009.241>
- [17] C. J. Kim, J. S. Hwang, A Study on the Effects of Senile Disease and Depression on the Seniors' Ideation of Suicide,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al*, (2008), Vol.28, No.3, pp.425-442.
UCI: G704-000573.2008.28.3.009
- [18] E. S. Lee, S. J. Lee, The Stress, Depression, Suicidal Thoughts and the Buffering Effect of Leisure Sports Participation Among the Elderly in Rural Area, *Korean Society for the Sociology of Sport*, (2009), Vol.22, No.2, pp.35-54.
DOI: <https://doi.org/10.22173/jksss.2009.22.2.35>
- [19] Korea Social Statistics, (2022)
Available from: https://kostat.go.kr/boardDownload.es?bid=219&list_no=421772&seq=23
- [20] E. H. Lee, S. Jeong, Ego Identity as a Mediator Between Parenting Behaviors, Peer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A Structural Equations Analysis, *Studies on Korean Youth*, (2006), Vol.17, No.2, pp.213-239.
UCI: G704-001385.2006.17.2.002
- [21] K. N. Lee, Y. J. Kim,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the effect of the caregiving burden of primary caregivers on depression: targeting primary caregivers of elderly people who use a day care center, *Perspektivy nauki i obrazovania – Perspectives of Science and Education*, (2022), Vol.58, No.4, pp.508- 521.
DOI: <https://doi.org/10.32744/pse.2022.3.30>
- [22] E. S. Hong, Conceptual Understanding of Resilience and Instructional Suggestion,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006), Vol.41, No.2, pp.45-67.
UCI: G704-000685.2006.41.2.003
- [22] S. A. Lee, The Effect of Overprotective Parenting Attitudes and Resilience on School Adjustment and Depression of High School Students, *DongAh University, Master Thesis*, (2021)
- [23] E. S. Min, Relationship Between Stress, Depression, and Resilience Of Middle-aged Women,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2017), Vol.11, No.4, pp.199-207.
DOI: <https://doi.org/10.21184/jkeia.2017.06.11.4.199>
- [24] M. R. Choi , Y. C. Lee, The Leisure Sports Participation, Life Stress, Depression and Buffering Effect of Resilience Among the Elderly,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2006), Vol.51, No.1, pp.75-90.
UCI: I410-ECN-0102-2021-600-000193700
- [25] M. S. Lee, A Study on the Effects of Depression on Death Anxie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of Elder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010), Vol.49, pp.241-165.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29864>
- [26] J. Y. Kim, J. H. Kim, J. S. Park, M. K. Lee, Y. R. Bang, S. H. Kim, J. H. Park, Attitude toward Suicide in the Elderly Suicide Attempter, *Journal of Korean Geriatric Psychiatry*, (2020), Vol.24, No.1, pp.17-21.
DOI: <http://dx.doi.org/10.47825/jkgp.2020.24.1.17>
- [27] B. Resnick, Resilience in Older Adults, *Topics in Geriatric Rehabilitation*, (2014), Vol.30, No.3, pp.155-163.
DOI: <https://doi.org/10.1097/TGR.0000000000000024>

- [28] H. N. Kim, H. R. Seo, The Effects of Self-Efficacy on the Depression of Lonely Frail Elder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010), No.48, pp.59-82.
DOI: <https://doi.org/10.21194/kjgsw..48.201006.59>
- [29] Y. K. Lee, M. H. Jeong, The Effect of Family Resilience on Depression and Suicide Ideation of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013), Vol.61, pp.111-134.
Available from: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30045>
- [30] Y. S. Lee, Effects of Cognitive Flexibility and Resilience on Job Search Behavior in New Middle-Aged, Sook-Myoung Women's University, Master Thesis, (2021)
UCI: I804:11043-000000069784
- [31] S. Kim, J. R. Han, Adults' Death Perception, Death Preparation, and Death Anxiety, *Korea Journal of Population Education*, (2012), Vol.5, No.1, pp.23-48.
UCI: I410-ECN-0102-2013-320-002122561
- [32] S. Y. Lee, A Study on the Predictor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th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s*, (2011), Vol.30, No.1, pp.181-202.
DOI: <https://doi.org/10.18284/jss.2011.06.30.1.181>
- [33] S. Y. Hwang, J. H. Ha, The Effect of Voluntariness in Residential Decisions on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Living Alone: Does Elderly Parents' Relationship with Children Mediate This Effect?,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16), Vol.36, No.1, pp.1-20.
UCI: G704-000573.2016.36.1.004
- [34] N. H. Kim, S. Y.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Caring burden of Middle-aged Caregivers caring for Chronic diseas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9), Vol.20, No.2, pp.300-310.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2.300>
- [35] E. S. Kim, Death Anxiety and Depression between Old Man Living Alone and Elderly Living with Family, Daejeon University, Master Thesis, (2004)
- [36] K. R. Baik, Study on Depression of Senior Citizens Living Alone and Those Living with Family in the Lower Income Bracket in a Community, Korea University, Master Thesis, (2006)
- [37] S. H. Ryu, Y. J. Kim, Effects of Acculturation Stress on Depression in Parents-in-law of Multicultural Families, *Asia-pacific Journal or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2023), Vol.9, No.4, pp.253-265.
DOI: <https://doi.org/10.47116/apjcri.2023.04.21>
- [38] J. H. Lee, S. J. Yang, On the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Ego-Integrity and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aily Stress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19), Vol.32, No.4, pp.151-169.
DOI: <https://doi.org/10.35574/KJDP.2019.12.32.4.151>
- [39] F. J. Kohout, L. F. Berkman, D. A. Evans, J. Cornoni-Huntley, Two Shorter Forms of the CES-D Depression Symptoms Index, *Journal of Aging and Health*, (1993), Vol.5, No.2, pp.179-193.
DOI: <https://doi.org/10.1177/089826439300500202>
- [40] K. M. Connor, J. R. T. Davidson,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2003), Vol.18, No.2, pp.76-82.
DOI: <https://doi.org/10.1002/da.10113>
- [41] H. S. Baek, K. U. Lee, E. J. Joo, M. Y. Lee, K. S. Choi,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Psychiatry Investigation*, (2010), Vol.7, No.2, pp.109-115.
DOI: <https://doi.org/10.4306/pi.2010.7.2.109>
- [42] D. Lester, The Collett-lester Fear of Death Scale: The Original Version and a Revision, *Death Studies*, (1990), Vol.14, No.5, pp.451-468.
DOI: <https://doi.org/10.1080/07481189008252385>
- [43] M. N. Oh, A study on Self-Esteem, Death Anxiety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in Home and Facilities, Young-Nam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03)

- [44] A. F. Hayes, Partial, conditional, and moderated moderated mediation: Quantification, inference, and interpret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2018), Vol.85, No.1, pp.4-40.
DOI: <https://doi.org/10.1080/03637751.2017.1352100>
- [45] A. T. Beck, R. A. Steer, Internal Consistencies of the Original and Revised Beck Depression Inventor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84), Vol.40, No.6, pp.1365-1367.
DOI: [https://doi.org/10.1002/1097-4679\(198411\)40:6<1365::AID-JCLP2270400615>3.0.CO;2-D](https://doi.org/10.1002/1097-4679(198411)40:6<1365::AID-JCLP2270400615>3.0.CO;2-D)
- [46] R. Bala, S. K. Maheshwari, Death Anxiety and Death Depression among Elderl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ic Nursing*, (2019), Vol.5, No.1, pp.55-59.
DOI: <https://doi.org/10.5958/2395-180X.2019.00012.4>
- [47] N. S. Moon, K. M. Na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ath Preparation of the Aged and Successful Aging -Focusing on Depression and Death Anxiety as Mediator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08), Vol.28, No.4, pp.1227-1248.
UCI: G704-000573.2008.28.4.010
- [48] A. K. Pandya, T. Kathuria, Death Anxiety, Religiosity and Culture: Implications for Therapeutic Process and Future Research, *Religions*, (2021), Vol.12, No.1, p.61.
DOI: <https://doi.org/10.3390/rel12010061>
- [49] H. J. Byun, Y. J. Jung, The Effect of Mandala Group Art Therapy on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Elderly Living Alone, *Korean Journal of Arts Therapy*, (2020), Vol.20, No.1, pp.165-183.
DOI: <https://doi.org/10.18253/kart.2020.20.1.08>
- [50] Y. S. Kim, M. S. Kim, The Relationship among Senior Dance-sports Participant's Exercise Flow, Resilience and Family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Dance and Science Technology*, (2017), Vol.13, No.4, pp.41-64.
- [51] S. Macleod, S. Musich, K. Hawkins, K. Alsgaard, E. R. Wicker, The Impact of Resilience among Older Adults, *Geriatric Nursing*, (2016), Vol.37, No.4, pp.266-272.
DOI: <https://doi.org/10.1016/j.gerinurse.2016.02.014>